

1. 통상현안정보

■ 우크라이나-EU간 경제관계 현황

□ EU가입은 우크라이나정부의 최고 외교목표

- 우크라이나 정부는 EU가입을 최고의 외교목표로 설정하고, 2010~2011년중 이를 달성한다는 계획하에 다각적 노력을 경주해 왔음.
- 우크라이나는 정액관세를 유로화로 설정하고 제반 법률도 EU가입을 목표로 정비해 왔으며, 경제정책 입안시에도 EU가입 조건 충족을 염두에 두어 왔음.
- 우크라이나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, 그 동안 EU는 우크라이나 경제체제의 이질성, 부패 및 지하경제 만연 등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여 왔음.
- 하지만 2004년말 선거를 통해 친서방 노선을 걷고 있는 유셴코(Yushchenko)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EU와의 관계가 좀더 빠른 속도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
- 유셴코(Yushchenko) 대통령 당선자는 EU가입 문제를 전담할 유럽통합부(European Integration Ministry)를 신설할 계획이며, 이 유럽통합부는 신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처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음.

□ 우크라이나-EU간 교역 큰 폭 확대 추세

- 최근 우크라이나 대외교역이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EU와의 교역도 매년 높은 비율로 확대되고 있음. 우크라이나 공식통계에 따르면 2003년 우크라이나-EU간 교역은 156억달러로서 전년 대비 41.3%나 증가했음.
 - 2004년에도 이러한 증가추세가 지속되었으며, 2004년 1~11월간 교역규모는 172억불에 달했음.
- 對EU 수출 및 수입도 각각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, 2003년 우크라이나의 對EU 수출은 45.2%, 對EU 수입은 36.5%가 증가했음.
- 2004.1~11월간 우크라이나의 교역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31.2%로서 2003년(33.9%)과 2002년(32.4%)에 비해 하락했는데, 이는 EU확대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對EU 교역은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 주고 있음.
 - 이는 신규로 EU에 가입한 중동유럽국가들과의 교역에 EU의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함에 따른 일시적 위축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음.
- EU 국가중에서 독일, 이탈리아, 폴란드는 수출입 모두 주된 파트너국가이며, 이 외에 불가리아, 헝가리는 10대 수출국가에, 프랑스는 10대 수입국가에 속함.

- 우크라이나의 對EU 주종 수출품목은 에너지 및 화학제품(18.1%), 철강(15.1%), 전기기계 및 설비(6.6%), 공구류(6.4%), 기계설비(5.5%) 등이며, 對EU 주종 수입품목은 기계설비(17.8%), 차량(11.5%), 전기기계 및 설비(8.6%), 합성수지제품(6.6%), 지 및 판지(4.8%) 등임.

< 연도별 우크라이나-EU간 교역동향 >

(단위 : US\$ 백만)

	2002		2003		2004. 1-11	
	합계	對EU(비중)	합계	對EU(비중)	합계	對EU
교역	34,077	11,062(32.4%)	46,100	15,635(33.9%)	55,132	17,233(31.2%)
수출	17,928	5,300(29.5%)	23,080	7,770(33.6%)	29,484	8,365(28.3%)
수입	16,149	5,761(35.6%)	23,020	7,864(34.1%)	25,648	8,867(34.5%)
수지	783	-461	60	-94	3,836	-502

(자료원 : 우크라이나 통계위원회)

□ EU가 우크라이나 FDI의 50%이상 차지

- 교역보다도 외국인투자는 우크라이나의 EU에 대한 의존도가 더 큰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, 직접투자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EU간 경제적 협력관계는 갈수록 더욱 긴밀해지고 있음.
- 2004년 7월 1일 기준 EU의 對우크라이나 직접투자는 42억1,540만달러로서 우크라이나 총 외국인투자유치액(73억2,480만불)의 57.5%를 차지했음.
- EU 국가중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대 투자국은 사이프러스로서 투자누계액이 1,077백만불에 달하며, 이어서 영국(741백만불), 독일(535백만불), 네덜란드(508백만불)의 순임.

□ EU가입에 대비한 우크라이나 진출 확대방안 모색 필요

- 2004년 5월 1일부로 폴란드 및 헝가리가 EU에 가입함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현재 EU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, 시기가 문제일뿐 결국 EU에 가입하게 될 국가라고 보아야 함.
- 따라서 우크라이나를 EU진출 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연구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됨.
- 동유럽에 비해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인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EU시장 및 인접 러시아시장까지 겨냥할 수 있는 좋은 생산기지임.
- 또한 서구기업들이 인구 4천7백만의 우크라이나 시장을 직접 공략하기 위해 투자진출을 확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기업도 이제 단순 상품수출에서 벗어나 현지투자를 통한 중장기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.

- 우크라이나는 경공업이 취약하여 산업설비 및 플랜트 수요가 크고, 기존 중화학공업 설비의 개보수 프로젝트도 많이 나오므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진출을 통해 산업설비 및 원부자재의 수출확대를 도모해야 함.
- LG그룹은 우크라이나 정유공장 Ukrtatnafta의 현대화 프로젝트에 약 2억불을 투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, 대우그룹의 철수 후 우리기업이 우크라이나에서 추진하는 최초의 대형 투자건으로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음.
- 또한 우크라이나의 건축붐과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빈발에 대응하여 우리 건설업계에서도 우크라이나 진출방안을 심도있게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
(문의처 : 키예프무역관 신남식 kotraiev@gt.com.ua)